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관한 연구

## Housewife's Housework Time and Household Expenditure for Time-saving at the Lifecycle Stag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文淑才

여주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조교수 鄭智英

Consumer Studies & Family Resource Management Ehw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Home Economics Yeojoo Thecnical College

Assistant Prof. : Jee Young Jeong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usewife's housework time and the expenditure for time-saving goods and service at the lifecycle stag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se two variables.

The data is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412 housewives living in Seoul and around new two cities. The data is analyzed using Mean, Frequency, Percentile,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1. Housewife's housework time h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lifecycle stages ( $p < 0.01$ ).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it is housewife's employment and the next are domestic helper,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housewife's

age( $p < 0.01$ ).

2. The expenditure for time-saving has mos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ifecycle stages. And the other influential factors to it are housewife's employment,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housewife's age( $p < 0.001$ ). The explanatory power of all variables is 36%.

##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수준의 향상은 가정의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70년대 이후의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가족규모의 감소와 평균 연령이 증가되면서 가족생활주기상 자녀출산기와 양육기가 단축되고 노년기가 대폭적으로 연장되었다(장윤옥, 1992; 문숙재, 1996). 또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과 성역할관념의 변화를 통하여 가족원의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의 측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부들의 가사작업을 감소시켜주는 다양한 가전기구들의 보급과 기혼 여성의 취업율의 증가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내용과 노동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문숙재·정영금, 1988; 김성희, 1996). 일 예로써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맞벌이 가정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취업이나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한 시간부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의 구매와 활용, 즉 시간-노동절약형 상품의 소비가 최근들어 크게 증가하였다(이기영, 1987; 정지영, 1990; 신영철, 1996). 이를 반영하듯 1970년대부터 20년간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상품대체'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외식과 냉동제품, 일회용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매년 20%에서 30%까지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이기영, 1987; 이재희, 1989; 도시가계연보, 1995).

그러나 다양한 시간절약상품과 첨단 가사노동 대체기구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몇몇 실증연구들(Cowan, 1976; Hertman, 1974; 이정수·고경애, 1985; 김성희, 1996)에서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과 노동부담이 과거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두가지로 나

타나고 있다. 하나는 가사노동 영역별로 시간절약 상품의 대체에 의해 시간절약이 가능한 영역의 여유시간이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가족원 전체의 욕구충족의 극대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한 소비시간으로 이전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른 해석은 주부들이 가전기구의 사용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영역에서 가족원들의 욕구충족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에 보다 정성을 들임으로써 가사노동 부담의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노동절약형 상품의 이용을 통하여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 영역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들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조사한 실태연구(임정빈, 1981; 오윤자, 1983 이정수·고경애, 1985; 김선희, 1989 등)와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차이(조혜정, 1985; 한경미, 1989, 1991; 이승미, 1990; 장윤옥, 1992 등)를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어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생활시간의 내용과양, 그리고 가사노동 시간수요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자녀의 수와 연령, 특히 막내자녀의 연령에 의하여 차이가 생기고(이정수·고경애, 1985; 한경미, 1987, 1989; 장윤옥, 1992), 생활주기 단계마다 자녀의 주부에 대한 요구와 필요도는 질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부들의 가사노동 영역별 노동시간과 그 노동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주부들의 생활주기단계마다의 각기 다른 노동부담과 시간압박의 정도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노동절약 상품의 구매와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주기단계별에 따라 가족원들의

주부에 대한 각기 다른 요구를 반영하여주는 주부에 대한 요구가 다르며 이것이 가사노동시간에 반영된다고 보고, 생활주기단계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량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활주기단계별로 주부들이 가사노동시간량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계에서의 시간절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를 분석하여 앞으로 변화하는 가정에서의 생활주기단계별 가사노동사회화에 대한 요구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가족생활주기란 전형적인 가족이 일생동안 거치는 연속적인 단계들로서 생활주기단계가 같은 가족들은 발달과정상 비슷한 사건과 위기를 경험하고 비슷한 발달과업을 지니는 반면(장운옥, 1992), 가정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단계의 가족들과는 서로 다른 요구와 자원을 소유하고 서로 다른 행동유형을 취하게 된다(권혜연, 1996). 이와같이 생활주기단계는 가족들이 각각 행하는 행동이나 내용이 고유하게 다르고 뚜렷이 구분되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진행에 따른 단계별 가정생활상의 변화와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홍향숙, 1989). 특히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통하여 상대적인 소득수준, 주부의 취업여부와 시간수요 및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과 가족관계 등 가족생활의 중요한 요인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이점이 있다(장운옥, 1992).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결혼지속연수, 첫자녀의 출생, 자녀의 연령, 가장의 연령, 결혼상태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이 경험하는 사상(事像)들 중에서 하나 혹은 둘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첫자녀를 중심으로 생활주기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장운옥, 1992), 가

사노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시간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권혜연, 1996). 본 연구에서는 생활주기 단계적인 측면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부의 시간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출생과 막내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생활주기단계를 신혼기, 미취학아동기, 자녀초등학교기, 자녀중고등학교기, 자녀독립기, 은퇴기의 6단계로 분류하였다.

가족생활주기 단계상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수요는 선행연구들(권혜연, 1996; 장운옥, 1992; 문숙재, 1996)에서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간량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생활주기단계별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지출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결혼과 함께 가정을 형성하여 자녀를 출산하기 전까지의 신혼기에는 가사노동시간의 수요와 양이 많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과 취업여부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량과 시간-노동 절약 제품의 소비량, 그리고 시간제고용인이나 가정부의 이용에 따른 지출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 반면 자녀의 미취학아동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수요가 급증하고 취업여부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소득의 한계내에서 시간절약제품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와 환자돌보기 등 가족돌보기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녀초등학교기에는 점차 시간압박이 줄어들고 가사노동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자녀양육비의 지출이 줄어든 만큼 다양한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자녀의 사교육비가 증가함으로써 가족돌보기를 위한 시간절약지출비는 지속적으로 많이 들게 된다. 자녀중고등학교기 이후에는 가족들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함으로써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시간절약지출비를 줄여 자녀독립기의 재정적 준비를 하게 된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하는 자녀

독립기와 두 부부만 남는 은퇴기에는 가족규모가 줄어들고 안정된 가정환경과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과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취미활동비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비, 의료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같은 생활주기에 따른 가사노동시간량의 변화에 대하여 케이드 브라이언트(W. Keith Bryant)는 가족원과 주부들이 시간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를 통하여 시간소비를 선택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문숙재 외 3인, 1993). 즉, 사람들은 미래의 기대에 비추어 현재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결정을 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선택안중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시간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잠재적인 가사노동시간이 시간절약적인 재화에 비해 얼마나 비싸질 것인가를 예상하여 일생 중 어떤 시기에는 가사노동시간을 많이 수요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가사노동시간을 적게 수요하게 된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소득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실질임금률이 증가하는 중년기까지는 취업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가사노동시간을 소비로 대체시키지만, 중년을 지나 은퇴기에 가까워질수록 소득능력이 둔화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이 소비재의 구입보다 더 싸게 되어 가계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같이 가족들은 생활주기단계에 따라 수행해야 할 임무가 다르고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수요와 그에 따른 시간절약지출비에 각기 차이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부들의 생활시간구조의 영향요인 규명(문숙재, 1996; 허경옥, 1997)과 생활주기단계에 따른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장윤옥, 1992)에만 초점을 두었을뿐 구체적인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와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각 생활주기 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요구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 시간절약지출비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관한 연구은 여성의 취업증가와 가계소득의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가족적 요구와 다양한 상품과 가전기구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가사노동과 시간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시간 제약과 대처전략 및 시간관리방안에 관한 연구(Hall, 1972; Axinn, 1977; Gross, Crandall & Knoll, 1980; Rice와 Tucker, 1986)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관리적 측면에서의 시간계약이나 시간압박에 대한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가계생산 이론의 한 부분으로서 가사노동의 미래의 방향과 가사노동 사회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있다(강정옥, 1984; 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이재희, 1989; 조윤경, 1988; 정지영, 1991).

시간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들에서는 시간계약과 파중한 역할부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간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취업주부들의 경우에 가사노동의 시장 대체 빈도가 보다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이승미, 1989; 조성은, 1991; 장윤옥, 김지연, 1994; Nickols & Fox, 1983; Strober & Weinberg, 1980). 반면 비취업주부들은 취업주부들보다 시간절약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서도 가사노동시간 압박에 적응하는 다양한 시간관리 방안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사노동 대체를 재화와 서비스 및 내구내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거나 가사노동 5개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이용정도를 파악하고 있다(강정옥, 1984; 정연주, 1986; 이기영, 1987; 이재희, 1989; 조윤경, 1988; 정지영, 1991). 이들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구매 및 관리 등 가사노동의 각 하위영역별로 사회화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가사노동 대체재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생활영역에서는 기성복의 구매와 수선 및 관리가 대부분 시장대체되어 있으며, 어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양육과 교

육을 위한 지출비의 부담이 증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김혜연, 1995; 정지영, 1991; Yang & Margrabi, 1989).

이와같이 각 가정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생활의 질과 표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순수한 가정재와 가사노동 시장대체재인 시간절약재의 양을 적정수준에서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절약재는 크게 시간절약 서비스와 재화로 양분되며, 시간절약 재화는 시간절약 내구재와 소비재로 세분되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절약 내구재와 소비재 및 서비스의 세 영역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 1) 시간절약 내구재에 의한 대체

시간절약 내구재에 대한 가계지출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주부의 취업여부와 가계소득 수준이 가장 영향미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동일한 소득 집단내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시간절약 내구재에 대한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trober & Weinberg, 1977; Nickols & Fox, 1983),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압박을 줄이기 위한 대체재로서 아내의 취업에 의한 소득증가와 총가족소득의 증가에 대하여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Reilly, 1982). 그러나 이에 반해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들보다 노동집약적인 관리가 높게 요구되어지는 소비재 관리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동하고 유지시켜야 하는 내구재 기계들을 적게 구매하려 한다는 연구결과(Galbraith, 1975)도 제시되어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2) 시간절약 소비재에 의한 대체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들이 무수히 개발되어져 있는 반면 이들 시간절약 재화에 의한 대체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존이 어려운 식품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편이고 유아용품이나 신체관리용품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지고 있다(경향신문, 1997.4.10.). 이 중 조리식 지출과 가족소득, 가족크기, 자녀의 유무, 주부 연령과 정적

인 관계를 나타내었고(Redman, 1980), 취업주부가 일회용 기저귀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Nickols & Fox, 1983), 이들 소비재 지출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까지 적은 편이어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미진한 편이다.

#### 3) 시간절약 서비스에 의한 대체

시간절약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외식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며, 취업주부의 경우 외식을 더 자주 하고(Nickols & Fox, 1983), 주부의 취업과 어린 자녀의 존재가 자녀양육을 위한 서비스 구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Nickols & Fox, 1983; Bellante & Foster, 1984; Yang & Margrabi, 1989). 그러나, 주부의 취업과 가정서비스 혹은 의복서비스에 대한 지출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Bellante & Foster, 1984; Nickols & Fox, 1983; Yang & Margrabi, 1989), 외식비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몇몇 연구들(Bellante & Foster, 1984; Yang & Margrabi, 1989)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간절약 지출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연구결과들이 일관된 경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간절약재화에 대한 주부들의 요구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기단계별로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수요와 시간절약 내구재와 재화 및 서비스의 각 영역에서의 시간절약재 지출 정도를 규명하고,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재 구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 Ⅲ.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차이가 있는가?
- 2)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차

이가 있는가?

- 3)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 지출비의 관계는 어떠한가?
- 4)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5) 생활주기단계별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대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조사도구와 척도의 구성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 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주부의 가사노동영역별 가사노동 시간량에 관한 문항, 그리고 시간절약 재화와 서비스 및 내구재에 대한 지출비 등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 2) 척도의 구성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는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 취업여부 및 월평균수입, 월평균 가계소득, 가족수, 자녀수, 가사노동을 대체하여줄 고용인의 유무등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지난 주중에서 토요일을 포함하여 가장 일반적인 하루의 평일과 일요일의 주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을 주부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고, 일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의 가사노동시간에 6일을 곱하고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더하여 7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생활주기단계별 시간절약 지출비는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월지출비로써 그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시간절약 재화의 지출비는 배달음식과 미리 준비된 시장음식, 편의식품(즉석, 냉동식품포함), 가공식품 등의 소비재의 구매에 사용된 월지출비와 지난 1년간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구매한 시간절약 내구재에 대한 지출비를 12개월로 환산한 월지출비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이들 시간절약 내구재 지출비는 전자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청소기, 전기밥솥, 가스오븐렌지, 주택 전자제어를 위한 홈오토메이션기, 전기간디깎기 등 주부의 가사노동을 경

감시켜줄 수 있는 10개의 품목에 대한 지출비가 포함되었다. 시간절약서비스는 외식비와 의복의 세탁과 수선비, 가구가전제품수리비, 정원손질비, 주택수리비, 쓰레기수거비, 의복침구 맞춤비, 탁아비, 가사고용인비, 그 외의 기타서비스비 등의 10가지 영역에서의 월지출비로 측정하였다.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생활주기 단계별로 가계의 시간절약지출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고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혼 주부를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지출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부들을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의 특성에 따라 임의의 층화표집을 하여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생활주기단계의 제약상황을 고려하여 1996년 11월 17일에서 24일까지 118개의 표본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12월 4일부터 16일까지 실행되었으며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45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SAS/PC Statistic Programme Windows Version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 대한 기초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시간절약지출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고, 각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Duncan's Test를 사용하였다. 이들 전체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Pearson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지출비에 대한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OL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시 가변수의 처리는 주부의 취업은 비취업은 0, 취업은 1로 계산하였으며, 가사고용인의 유무는 고용인이 없을시에는 0, 고용인이 있을시에는 1로 계산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부의 평균연령은 36.12세였으며, 평균 자녀수와 평균 가족수는 각각 1.79명과 3.96명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크기와 가족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부의 평균 취업소득은 월평균 649,520원으로 전체 여성월평균 임금인 549,000원(여성개발연구소, 1996)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월평균 가계 총소득은 1,894,200원으로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득 178만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도시가계연보 199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53)

변 수	구 분	N	%
주부연령	25 - 34세	77	17.1
	35 - 44세	140	30.9
	45 - 54세	146	32.2
	55세 이상	88	19.8
주 부 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29	28.5
	고졸	182	40.1
	대졸이상	142	31.4
주 부 의 취업여부	취업	141	31.3
	비취업	312	68.2
자 녀 수	없음	39	8.5
	1명	193	42.7
	2명	136	30.1
	3명이상	87	19.2
가 족 수	2인	44	9.8
	3인	173	38.2
	4인	137	30.3
	5인이상	98	21.7
가사고용인 유무	있음	86	18.9
	없음	367	81.1
주부소득*	100만원미만	73	16.1
	101-200만원	45	10.0
	151만원이상	22	4.9
월 평 균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156	34.4
	101-200만원	157	34.7
	201만원이상	140	30.9
생활주기 단 계	신혼기	26	5.8
	자녀미취학기	83	18.4
	자녀초등교육기	125	27.6
	자녀중고교육기	92	20.3
	자녀독립기	74	16.3
은퇴기	53	11.6	

\* 주부소득은 취업주부에 한하며 표본수는 140명임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생활주기 단계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평일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과 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으로 나누어 측정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생활주기 단계별로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량은 평일과 일요일, 일일 평균 모두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p < 0.01). 신혼기의 주부들의 경우에는 주중평균 6시간 정도로 두 부부만이 남는 축소기의 5시간 48분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은퇴기의 주부들보다 신혼기의 주부들이 가사노동 기술이 숙련되어 있지 못하고 서투르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신혼기의 하루 평균 6시간이었던 가사노동시간은 첫자녀의 출생과 함께 막내자녀가 취학하기 전까지 9시간 51분으로 극심하게 늘어났으나, 자녀들의 성장과 취학에 따른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과 주부의 가사노동 숙달로 인하여 초등학교기와 중고등학교기에는 각각 8시간 18분과 7시간 14분으로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생활주기 단계에서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주부들의 시간압박이 증가하고 따라서 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 자녀의 시간요구가 결정적인 영향요인임을 시사하여 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이다(한경미, 1991; 장운옥, 1992; 이기영, 이승미, 1994; 권혜연, 1996).

2. 생활주기단계에 따른 주부의 시간절약지출비

주부의 월평균 시간절약 총지출비는 260,600원으로 생활주기단계에 따라서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신혼기에 198,800원이었던 시간절약지출비는 첫 자녀의 출생과 함께 자녀미취학기까지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시간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고 398,500원까지 상승하다가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들이 대학진학과 출가, 군입대등으로 자녀독립기에 이를

〈표 2〉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N = 453)

변 수	구 분	평 일			일 요 일			평 균		
		Mean	F	D	Mean	F	D	Mean	F	D
생활주기 단계	신 혼 기	362		A	355		A	361		A
	자녀미취학	615		D	453		C	591		D
	자녀초등기	514	**	C	402	**	BC	498	**	C
	자녀중고교	453	13.43	B	379	7.21	B	434	10.12	B
	자녀독립기	411		AB	354		AB	402		AB
	은 퇴 기	354		A	318		A	348		A

\*\* p&lt;0.01, F= F값, D = Duncan's Test 결과

〈표 3〉 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시간절약지출비

(단위, 천원)

시간절약지출비	시간절약 총지출비			시간절약 내구재			시간절약 소비재			시간절약 서비스		
	평균	F	D	평균	F	D	평균	F	D	평균	F	D
생활주기단계												
신혼기	198.8		AB	29.2		B	65.4		AB	104.2		A
자녀미취학기	398.5		D	24.3		AB	132.3		C	241.9		C
자녀초등학교기	308.3	***	C	22.0		A	112.0	**	BC	174.3	***	BC
자녀중고등학교기	249.3	13.61	BC	19.6	2.01	A	94.5	8.92	B	135.2	12.56	B
자녀독립기	234.8		B	28.6		B	84.9		AB	121.3		AB
은퇴기	173.9		A	18.2		A	54.2		A	101.5		A
평 균	260.6			23.7			90.6			146.4		

\* p&lt;0.05, \*\* p&lt;0.01, \*\*\* p&lt;0.001, F= F값, D = Duncan's Test결과

때까지 서서히 줄어들다가 두 부부만이 남는 은퇴기에는 신혼기보다 더욱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은퇴기의 주부들이 이미 가사노동에 숙달되어 있고 자녀의 독립으로 가사노동시간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시간절약을 위한 제품들에 대한 요구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된 생활주기 단계별 가사노동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절약 총지출비가 막내자녀의 학령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케이트 브라이언트(W. Keith Bryant)의 생애주기에 따른 시간배분이론과 시간절약지출비 사용에 대한 가설(문숙재외 3인 공역, 205p.)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

특히 시간절약지출비의 하위영역중에서 서비스 지출비는 월평균 146,400원으로 총시간절약지출비의

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지출된 영역이었고, 생애주기단계별 지출비의 차이가 없었던 내구재나 유의한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소비재(P<.01)에 비해 생활주기단계별 지출비의 하위집단간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p<.001).

시간절약내구재의 구매비용은 지난 일년간의 시간절약 내구재 지출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한 값으로 월평균 23,700원이 지출되었고 이 비용은 시간절약 소비재에 지출된 비용(90,600원)이나 서비스에 지출된 비용(146,000원)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었으며, 또한 생활주기단계에 따른 하위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간절약내구재의 구매가 대부분 신혼기와 생활주기단계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상품교체비용에 한



정되므로 구매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특히 조사 시기로 부터 일년전까지의 비용을 12개월로 환산한 값을 지출비로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응답값이 0값에 편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3.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지출비의 관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지출비의 관계는 생활주기 전단계에 걸쳐서 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표 4) 참조),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한 시간절약재의 구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시간절약지출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을수록 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기 위한 시간절약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많이 하여 시간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는 선행연구들(조성은, 1991; 김지연, 1994; 오경희, 1995)의 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또한 신혼기보다는 자녀 미취학과 자녀 초등학교기에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 지출비 사이의 상관관계가 보다 높은 반면 자녀의 중고등학교기 이후에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부들이 자녀양육과 자녀돌보기를 위한 시간 압박이 많은 자녀미취학과 초등학교기에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반적인 시간절약에 대한 구매요구가 증가하게 된다는(W. Keith Bryant; 문숙

재의 1996)의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절약 서비스 지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자녀의 유무가 가계서비스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Nickols & Fox, 1983; Bellaute & Foster, 1984)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내구재의 경우에는 신혼기에 가사노동이 익숙치 않아 가사노동 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기구의 구매를 통하여 기계화시킴으로써 대체시키려는 경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비재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

### 4.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제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력은 생활주기단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영향 요인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주부의 취업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이는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시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임정빈, 임혜경, 1992; 채옥희, 1995)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사고용인의 유무, 월평균가계소득과 주부 연령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반면 가족수와 주부의 소득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참조).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시장노동시간과 피로로 인하여 가사노동시간이 전업주부보다 적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장윤옥, 1992; 채옥희, 1995)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때 가족원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가사고용인의 유무가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월평균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시간절약지출비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하여 주기 때문에 생활주기단계별 가사노동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생활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간의 관계 (R<sup>2</sup>)

시간절약지출비	총지출비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
가사노동시간				
신혼기	.19**	.24**	.23**	.12*
자녀미취학기	.27**	.18*	.26**	.38**
자녀초등학교기	.23**	.17*	.19**	.32***
자녀중고등학교기	.16*	.11*	.17*	.21**
자녀독립기	.15*	.13*	.14*	.18*
은퇴기	.09	.07	.11*	.09
전생활주기단계	.23**	.18*	.20**	.24**

〈표 5〉 생활주기단계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제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

가사노동시간 독립변수	신혼기		자녀미취학기		자녀초등학교기		자녀중고등학교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주부의 연령	-12.45	-.32*	- 6.41	-.34*	- 4.31	-.32*	- 5.32	-.31*	- 5.27	-.29*	- 4.13	-.28*
주부의 취업@	49.83	.72**	44.12	.75**	46.12	.74**	39.12	.71**	38.12	.69**	36.12	.62**
가족수	8.52	.01	5.82	.12	5.11	.13	5.01	.09	5.08	.07	5.03	.06
가사고용인유무@	23.61	.56**	24.04	.61**	22.12	.57**	22.98	.55**	23.19	.52**	22.15	.50**
주부소득	- 6.97	-.14	- 7.42	-.13	- 5.43	-.11	- 6.33	-.06	- 6.37	-.05	- 5.64	-.05
월평균가계소득	-11.97	-.41*	-10.04	-.47*	- 9.97	-.44*	- 10.11	-.41*	-10.09	-.39*	- 9.86	-.37*
Constant	-41.06		-47.82		-46.42		-44.92		-43.88		-40.76	
R <sup>2</sup>	.53		.56		.51		.49		.39		.32	
F	4.18**		5.12**		4.98**		4.82**		4.16**		3.98	

\* p < 0.05, \*\* p < 0.01, \*\*\* p < 0.001, @가변수(가변수의 처리는 연구방법참조)

##### 5. 생활주기단계별 가계의 시간절약 내구재/소비재/서비스 지출비 각각에 대한 제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

가계의 시간절약 총지출비에 가장 영향미치는 변수를 생활주기단계별로 살펴보면 전 생활주기단계에서 모두 주부의 취업과 소득, 고용인유무와 월평균가계소득이었다(p < .01). 주부가 취업하였고 가사고용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월평균가계소득과 주부의 소득이 높을 수록 시간절약지출비를 많이 지출하였다.

생활주기단계별 내구재 지출비는 주부의 취업과 주부소득, 월평균가계소득이 영향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p < .01). 주부가 취업한 경우와 주부소득과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시간절약 내구재에 대한 지출비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가계가 주부 취업에 의한 소득기여와 총가계소득의 증가로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한 내구재의 구매를 증가시킨다는 Reilly(1982)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주부가 기계관리 시간의 부족으로 내구재구매를 적게 한다는 Galbraith(1975)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가사노동 기구의 수가 증가하고 시간절약을 위한 내구재들이 다양화되어짐에 따라 경제적 기반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주부의 가계가 기계관리에 드는 시

간보다는 가사노동의 기계화를 통하여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소비재 지출비에서는 시간절약 내구재 지출비에서와 동일하게 주부의 취업과 주부소득, 월평균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주부들과 시간압박을 받는 취업주부들이 조리음식에 대한 지출비를 증가시킨다는 Redman(1980)의 연구결과와 일회용품의 구매가 증가한다는 Nickols & Fox(198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지출비에 있어서도 생활주기 전단계에서 주부의 취업이 가장 영향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식과 자녀양육에의 서비스 지출이 주부취업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던 Nickols & Fox(1983)의 연구결과와 주부의 취업이 보다 많은 서비스 지출의 결정인자로 Wagner & Lucero-Campins(1988)과 Schwenk(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영향미치는 변수는 주부소득 및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주부소득과 월평균소득의 증가에 따라 서비스지출비가 증가하였는데 자녀양육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지출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던 Yang & Margrabi(198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해 보이고 있다. 그 이외에 가사고용인의 유무에 따라 시간절약 지출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사고용인이 있을 경우에 가계의

〈표 6〉 생활주기단계별 시간절약 지출비에 대한 제 변수들의 영향력

(단위: 천원)

영향요인	신혼기		자녀미취학기		자녀초등학교기		자녀중고등학교기		자녀독립기		은퇴기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총 지 출 비	주부 연령	7.45	.07	3.22	.03	1.45	-.01	1.67	-.03	2.36	-.04	2.43	-.05
	주부 취업@	92.28	.32**	325.28	.41***	232.14	.36**	203.17	.32**	162.28	.28**	92.18	.20**
	가족수	9.47	.11**	13.47	.21**	11.47	.17**	9.41	.14*	9.43	.14*	5.47	.07
	가사고용인유무@	163.61	.45**	253.22	.48***	185.63	.43***	175.34	.40***	163.61	.38***	121.63	.30***
	주부소득	3.12	.33**	4.12	.35**	3.65	.35**	3.12	.32**	2.41	.28**	1.18	.17*
	월평균가계소득	3.97	.41**	4.56	.44**	3.65	.38**	3.25	.35**	2.38	.27**	1.07	.15*
Constant	121.21		182.06		153.12		146.31		131.64		118.43		
R <sup>2</sup>	.31		.33		.29		.27		.25		.21		
내 구 재	주부 연령	1.41	.09	1.11	.07	0.93	.06	1.06	.07	1.09	.08	1.12	.06
	주부 취업@	12.95	.31**	11.13	.29**	9.33	.26**	9.45	.28**	10.13	.30**	10.98	.29**
	가족수	2.52	.02	2.31	.02	2.28	.01	2.37	.02	2.42	.02	2.46	.03
	가사고용인유무@	13.44	.09	12.22	.08	11.98	.07	12.14	.07	12.53	.08	12.44	.07
	주부소득	2.97	.21**	2.22	.23**	2.21	.19**	2.37	.20**	2.65	.21**	2.21	.16
	월평균가계소득	4.33	.29**	4.09	.27**	3.97	.28**	4.02	.27**	4.31	.30***	4.05	.27**
Constant	13.01		18.28		14.06		11.19		15.97		10.06		
R <sup>2</sup>	.29		.23		.15		.18		.21		.13		
소 비 재	주부 연령	2.12	.02	2.32	.02	2.11	.02	2.10	.02	2.09	.02	2.01	.02
	주부 취업@	10.83	.21**	12.33	.23**	11.66	.22**	10.53	.21**	9.42	.20**	8.23	.18**
	가족수	8.52	.01	8.65	.01	8.52	.02	8.42	.01	8.34	.01	6.78	.01
	가사고용인유무@	15.61	.03	15.01	.02	15.86	.02	14.34	.02	10.13	.01	8.61	.03
	주부소득	1.07	.25**	1.12	.26**	1.33	.26**	1.59	.27**	1.45	.26**	0.91	.19**
	월평균가계소득	2.07	.30**	2.11	.31**	2.65	.31**	2.69	.30**	2.57	.30**	1.97	.23**
Constant	51.06		62.96		54.64		52.69		50.32		48.19		
R <sup>2</sup>	.33		.32		.31		.28		.25		.22		
서 비 스	주부 연령	3.43	.02	3.23	.02	3.43	.03	1.44	-.01	1.58	-.07	2.43	-.16
	주부 취업@	63.23	.32***	254.15	.36***	185.58	.34***	111.23	.32***	98.29	.28**	63.23	.26**
	가족수	3.11	.01	3.38	.03	3.21	.02	3.11	.02	2.86	.01	3.11	.04
	가사고용인유무@	152.19	.28***	183.03	.31***	162.11	.28***	131.15	.24***	102.42	.20**	74.19	.29***
	주부소득	2.27	.21**	2.48	.21**	2.56	.23**	2.31	.21**	2.26	.19**	2.11	.21**
	월평균가계소득	3.13	.25**	3.21	.25**	3.23	.26**	3.04	.23**	2.96	.21**	2.09	.25**
Constant	23.14		24.32		25.01		23.67		21.34		19.86		
R <sup>2</sup>	.36		.37		.34		.32		.29		.26		

\* p < 0.05, \*\* p < 0.01, \*\*\* p < 0.001, @ 가변수

시간절약 서비스지출비가 신혼기에서 자녀초등학교기까지 최소 15만에서 최고 18만원이상 더 많이 지출되었다. 이는 가사고용인을 고용한 가계에서 특별히 시간절약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많다고 보다는 자녀양육으로 시간압박이 심한 생활주기 초기단계에서 주부들이 가사고용인을 통하여 가사노동을 대체함으로써 고용비 지급으로 인하여 시간절약 지출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또한 생활주기단계별 총지출비와 내구재/소비재/서

비스의 모든 하위영역 지출비에서 주부의 취업과 주부소득이 시간절약지출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부의 취업이 시간절약지출비에 영향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지지되었으며, 특히 가계재정적으로 주부의 취업과 주부소득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취업이익을 산출하는 반면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시장대체제, 즉 시간절약체의 소비를 통하여 취업비용도 증가시키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김혜연, 1995; 정순희 외, 1996).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활주기단계별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시간절약지출비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은 생활주기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1$ ), 신혼기이후 첫 자녀의 출생과 함께 막내자녀 취학하기 전까지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급속도로 증가되었다가 자녀들의 진학과 성장 및 독립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가족이 처한 생활주기단계의 특성에 따라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녀들의 연령이 어린 생활주기 초기단계에 있는 주부들, 특히 취업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의 소득과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생활주기단계마다의 가사노동시간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다음 생활주기단계에 대처하기 위한 가사노동계획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가족원의 가사노동분담계획과 가사노동사회화의 정도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시간절약지출비도 생활주기단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1$ ), 시간절약 내구재를 제외한 소비재와 서비스재에 있어서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대체효과로 자녀의 미취학기까지 절정을 이루다가 자녀의 취학 및 성장과 함께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 < .01$ ). 따라서 생활주기 초기단계에서 부터의 장기적인 가계소비지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계의 소비지출 많은 자녀의 미취학기까지 고가의 시간절약 내구재의 구매가 집중되어 있고, 소득의 증가와 함께 주부의 중년기까지 가사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간절약재화와 서비스의 구매가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가계의 장기적인 저축계획과 재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부가 취업하였을 경우와 가사고용인이 있을 경우, 그리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생애주기단계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가

계의 시간절약 지출비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취업과 가계의 재정적인 여유가 주부로 하여금 다양한 시간관리방법을 사용하고 가계의 시간절약지출비를 증가시켜 시간압박감을 해소하고 주부 개인의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을 확보하려한다는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조성은, 1991; 김지연, 1994; 한경미, 1994; 채우희, 1995)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저소득 가계에서의 주부들을 위한 생애주기단계별 가사노동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정적인 상태에 따른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 실태와 가사노동 사회화 정도에 관한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주부들이 가족원을 대표하여 가족원 전체의 욕구충족의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주기단계별 시간소비계획과 가사노동 및 생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 시간절약지출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주부들이 가족원을 대표하여 가족원 전체의 욕구충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주기단계별 시간소비계획과 가사노동 및 생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활주기단계마다 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량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미취학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요구임을 감안할 때 시간압박에 시달리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동적인 직장근무제의 확립과 양육시설의 보완이 여성정책적인 측면에서와 국가의 가족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에서의 필수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생활주기단계별로 다양한 주부들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대체품의 개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셋째, 주부 개인과 가족적인 차원에서도 자신의 시간의 효율적인 소비와 시간계획을 스스로 비교, 평

가함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주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직장 및 가정 생활에서도 만족감을 얻기 위한 가족원 사이의 가사 분담도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신주, 서병숙, 최보가(1988), "생활시간 관리의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권, 133-141.
- 2) 강정옥(1984),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실태조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 경향신문, 1997, 4월 10일
- 4)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성희(1996), "가정 기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지연(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에 시간 갈등이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 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통계청(1995), 도시가계연보 서울:통계청.
- 9) 문숙재, 정영금(1988), 도시 주부의 가정생산 시간 및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103-118.
- 10) \_\_\_\_\_(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학지사
- 11) 신영철(1996), "시간소비패턴과 시간-노동절약수단 활용에 관한 연구-서울, 경기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여성개발연구소(1996), 여성통계연보, 서울:여성개발연구소.
- 13) 오경희(1995), 청주시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과 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74-87.
- 14) 오윤자(1983), "서울시 주부의 생활시간관리 조사 연구 - 1일 생활시간 활용현황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정수·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도시와 소도시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2), 67-80.
- 18) 이재희(1989), "도시 주부의 가사관련 [서비스]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I)-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신대학 논문집 제 17호, 405-422.
- 19)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73-87.
- 20) 임정빈·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 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1(4) 261-278.
- 21) 장윤옥 (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2) 정연주(1986), "도시 가정의 가사노동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제미경(1995), 시간절약 재화 및 서비스 요구과 소비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26-35.
- 25)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채옥희(1995), 확대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8-98.
- 27) 한경미(1987),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95-112.
- 28) \_\_\_\_\_(1989)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29) \_\_\_\_\_(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0) 홍향숙(1989),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49-68.
- 31) 허경옥(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32)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s on Serv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1, Sept. 700-770.
- 33) Foster, A.C., Abdel-Ghany, M. & Ferguson, C.E. (1981). Impact of wife's employment on service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5, 918.
- 34) Galbraith(1973), *Economics and the public purpose*, Boston, MA.: Houghton Mifflin.
- 35) Hafstrum, J.I. & Schram, V.R.(1983), "Housework Time of Wives: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1, No.3, 245-263.
- 36) Hartmann, H.I.(1982), "Capitalism and Women's Work in the Home, 1900-1930", Ph.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74.
- 37) Nickols, S.Y. & Fox, K.D. (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38) Redman, B. 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 39) Reilly, M. 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 40) Rice, A. M. & S. M. Tucker(1986), *Family Lif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41) SchwenR, F.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2). 15-20.
- 42) Strober, M. H. & C. B. Weinberg(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8-348.
- 43) Wagner, J. & Lucero-Campins, L.(1988). Social class: A multivariate analysis of its effect on expenditures for household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4). 373-387.
- 44) Yang, S. J. & Margrabi, F. M. (1989), Expenditure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133-147.